

이정욱(대원성·연꽃모임 회장)
평생 '신행'으로 살아온 '우바이'
"가진 것 버리면 마음 채워져"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장로계경〉
좋은 것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만다.
달콤한 화살은 뽑아내기 어렵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1월 4일) · 주간

제1024호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선출 진행 vs 원점 검토 동국대 총장 선거 '파행'

跛行

16일 이사회서 적법성 놓고 격론... 결국 선출 보류

동국대 제18대 총장 선출이 중단
의압에 의한 후보사퇴 논란 속에 결
국 연기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정련)는
12월 16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
서 이사회를 열었지만 격론 끝에 총
장선출안의 안전장점을 못한 채 폐
회했다.

이사회 회의에서는 유력후보였던
김희옥 총장의 사퇴에 대한 조계종
단의 의압 논란과 총장 후보 3명 중
2명이 사퇴해 선출권이 제한된 상
황에 대한 이사들의 입장 차이가 드
러났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
한 조계종 종단 수뇌부와 회동 후
"종단 뜻을 받들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조의연 후보는 14일
"종단 개입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
됐다"며 사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면·명신·성
타·호성·삼보 스님을 비롯한 다
수의 이사들은 '후임 총장을 뽑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영
담 스님은 '종단 의압에 의한 후보
사퇴는 이사회 선출권을 제한하기
에 총장 선출은 적절치 않다'는 주
장을 각각 펼쳤다.

이사회는 총장선출안은 안전 채
택부터 진통을 겪어 점심시간이 돼
서야 채택됐다. 정회 이후 오후 이
사회 회회에 앞서 이사장 정련 스님
은 "(김희옥 총장과의)호텔 회동이
적당지리인줄 알았다. 미리 말해줬
다면 다른 방식으로 뜻을 전했을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서운함을 표했
다. 이사장 정련 스님은 대다수 이
사들의 거듭된 총장선출안 상정 요
구에도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안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사 일면 스님 등은 "현 총
장이 후보로 나와 떨어지는 것도 망
신하기에 스님 총장을 모시자는 종
단의 여론과 분위기를 미리 전달하

고자 회동을 한 것으로 압력을 행사
코자 함이 아니었다"고 회동 취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이 모여 '이번에는 스
님이 총장을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압력으로 느끼지 않은 재가자
가 어디 있겠느냐"며 "총장추천위
원회에서 3명의 후보자에서 적합한
1명을 뽑도록 한 이사회의 선출권이
침해됐기에 오늘 선출해서는 안
된다.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에 반영
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3명 중 2명 사퇴
선출권 제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 질의 후 논의키로

학생·불자 비판 성명 지속
"이사 아닌 다수 스님들의
사퇴 권유는 명백한 월권"

이사들은 회의 내내 총장선출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하며 합의를 도출
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성
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이연택 이사가 "교육부에 선
출권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뒤 유권해석을 얻어 다시 열자"
고 제안한 뒤 정련 스님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동
국대 이사회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김희옥 총장을 제외
하고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일
면·영담·명신·심경·호성·성
타·삼보·미산스님·이연택·김
성근·안채란 이사 등 12명이 참석
했다.

한편, 잇따른 총장 후보들의 사퇴

이후 동국대 구성원들은 총장선거
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수습대책
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회장 한만수)
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관
련없는 다수 스님들이 사퇴를 권유
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구성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
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동국대 차기 총학생회장인 제47대
총학 준비위원 제31대 일반대학원
총학 준비위원 15일 본관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개입으로 민
주적 절차가 훼손됐기에 총장 선출
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16일 이사회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8일 현재 동국대 커뮤니티 "다연"
에는 총장 선출에 대한 수십 건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재가불자
들의 눈도 감지 않는다. 우희중 서울
대 교수를 비롯한 종단 자정을 위한
불자모임 공동대표들은 12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 스님
들의 동국대 총장 선거 개입을 강하
게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1일 모인 6
명의 스님들 가운데 총장 선출권을
가진 동국대 이사는 정련 스님과 일
면스님 두 분 뿐"이라며 "이런 이들
이 모여 특정후보를 마음대로 사퇴
시킬 수 있다면 동국대 재단이사회
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총장후보
추대위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라고 반문했다.

공동대표는 △총장 선출과정에
불순하게 개입한 종단 지도부의 공
개 참회 △이사장 정련 스님과 이사
일면 스님의 사퇴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한마음합창단 '선법가' 부르며 세계평화 염원

음성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은 12월 13일 안양 아트센터에서 창단 30주
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고 요공당 대행 선사가 강조한 자정을 밝히는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로 2500여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는 한마음선원 스님 64명으로 구성된 승가합창단, 합창단 초창기 멤버들로 이루어진 한부리 합창단을 비롯해 보살·거사·
청년·어린이합창단 등 총 340명의 계승별 합창단이 무대에 올랐다. (관련 기사 5면)

조계종, 내년 첫 1급 승가고시 실시

고시위 17일 회의... 8기 위원장에 지안 스님

조계종이 내년부터 법랍 25년 이
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첫 1급 승가
고시를 연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
는 12월 17일 회의를 열고 2015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종단 최초로 시행되는 1급 승가
고시는 내년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
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며 대상자
는 010년 2급 승가고시를 합격해
대덕·혜덕 법계를 수지하고 교육
원 연수교육 점수가 연간 30점씩
총 150점 이상인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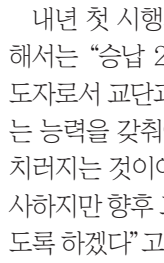
평가는 논술·실법 대신 수행 및
교화활동 이력과 향우 활동계획을
점검하는 갈마로 진행된다. 심사갈
마위원회는 비구 종사 이상 7명, 비
구니 명덕 이상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비구는 비구 종사 7명,
비구니는 비구 종사 이상 4명과 비
구니 명덕 이상 3명 등 7명이 심사
한다.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27일
중앙승가대 지혜관에서, 5급 승가
고시는 3월 23일 김천 직지사서
열린다.

이와 함께 이날 고시위원회에서
는 제8기 고시위원장으로 6·7기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지안 스님을



선출했다.
위원장 지안 스
님(사진)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가
진 자리에서 "역
사적으로 승가고
시가 잘 시행될
때 불교도 발전했다. 승가고시 활
성화를 통해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첫 시행되는 1급 고시에
대해서는 "승납 25년 이상이라면 지
도자로서 교단과 사회를 이끌 수 있
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처음
치러지는 것이어서 갈마 위주로 심
사하지만 향후 고시도 병행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가고시 합격률이 높아진 데
에서는 스님들의 학구열이 높아진 것
으로 분석했다. 지안 스님은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합
격률이 높아지는 것은 스님들의 학
구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고
시 응시 스님들이 지역별로 모여 그
를 스테디를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스님들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승가고시의 긍정적 여
파"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재정확충 방안 모색 나선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
회(위원장 주경)가 종단 재정구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위원
회를 구성했다.

재정분과위는 12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종단 재정현황에 대한
전반을 살피고 재정확충을 위한 연

구와 제제와 등을 추진할 '종단 재
정구조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재정분과위원장
주경 스님과 간사 설암 스님 등 7인
으로 구성됐다.

논의될 내용은 △토지처분금 활
용 방안 △신도시포교 예산 확보
방안 △공공성과 형평성에 기초한
사찰분담금 현실화 △승양중무기
관에 결산 심사 및 심의 등이다.
신성민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경력기자	각	① 경력기자 2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서류전형	필기시험
수습기자	0명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4년 12월 31일(수)까지
- 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
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
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발정보 및 인터넷 광고 (문의전화: 02-2004-8204)

1024호 INDEX

기획 8
2014 불교계 10대 뉴스



불교로 읽는 고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당뇨!! 대구한의대 임상실험 - 효과검증!!

침향의 효능을 甘露茶半으로 즐기다

감로다반

지리산 찾임을 침향으로 발효하여 정성껏 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원액을 담았습니다
깊고 온유한 맛과 향에 침향의 효능을 가미한 힐링음료입니다

NAVER 검색창에 **감로다반** 으로 검색하세요

취운량당 자회사 -
(주) 기바
070-4694-7366 www.giva.kr

임상실험을 통한 당뇨 검증!
• 신비의 침향발효 특허!
• 즉석 희석응용 원액피우치!
•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액상 침향발효차 甘露茶半 감로다반

지리산지리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 찾임을 침향으로 발효시키고 7시간 증탕으로 달여 위생적인
피우치에 담아낸 차 원액으로 다구 없이 편리하게 물에 희석하여 즐기는 건강음료입니다.

침향이란?
침향나무가 분비하는 치유물질로 베트남산
침향을 으뜸으로 치며 동양보감 등 옛 한의서에
간, 폐, 위, 간상선 등에 효험있다고 기록

감로다반의 효능
임상실험 결과 항당뇨, 항비만,
항고지혈 및 신장 보호에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임상실험 결과)

음용법
- 피우치 1포(50ml)를 기호에 따라 10배 정도 희석하여 음용
- 다구 없이 사무실, 가정, 여행지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온수 자유롭게 사용